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건물옥상을 다양한 문화·레저공간으로 활용	바르셀로나
문화·관광	4	여름밤 광장서 열리는 무료 영화축제 ‘큰 인기’	피렌체
산업·경제	7	월 최저임금 7년간 2배 이상 올랐다	상하이
사회·복지	10	학생 2만여명에 무료로 안경 준다	뉴욕
	12	남성 성폭력 피해자 전문 치료병원 개원	스톡홀름
환경·안전	14	초저탄소 배출 차량 프로젝트 대대적 시행	버밍엄
	17	‘녹색공간·생물다양성 증진’ 조경자격증 제도 신설	파리
도시교통	19	수소연료기술 활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도쿄
도시계획·주택	22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파리
	25	원격 근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뉴사우스웨일즈



건물옥상을 다양한 문화·레저공간으로 활용

문화관리자들, 음악·무용·연극 공연하는 프로젝트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문화·관광

- 스페인에서 옥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옥상 공간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바르셀로나 옥상 공간 프로젝트'와 '바르셀로나 테라스 개방(Upstairs BCN)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음.
- 옥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였으며 영화감독 데미안 사비니(Deminan Sabini)가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옥상 공간들은 이후 창고로 바뀌고 닫힌 옥상 공간을 회복하려는 공동목적의 지닌 활동 공간이 되었음.

바르셀로나에는 사용 가능한 사유공간인 옥상규모는 1,700만m²에 달해

-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 사용 가능한 옥상 공간의 규모는 1,700만m²에 달함. 옥상 공간을 문화·레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 탐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시간당 대여가 가능한 개별 공간으로도 볼 수 있음.
 - 옥상 공간 프로젝트 추진자인 리타 구알(Rita Gual)은 “그 많은 옥상 공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그 공간에 변화를 주고 그 공간을 즐기며 그 공간을 개선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고 언급함. 그는 '코인씨덴씨아스(Coincidències) 프로젝트'에 영감을 받아 옥상 공간에 활력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림.
 - 코인씨덴씨아스 프로젝트 추진자 중 한 명인 롤라 아르마다스(Lola Armadàs)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옥상 공간을 직접 활용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몇몇 이웃 커뮤니티는 옥상 공간을 폐쇄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임.
 - 롤라 아르마다스는 “코인씨덴씨아스 프로젝트는 근접 문화를 강화하고 이 공간들을 우리의 것으로 회복하며 종래의 공간에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양질의

문화적 제안을 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옥상 공간을 구성하는 매우 명백한 목적을 가진 로맨틱한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하였음.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옥상에서의 스윙 콘서트

장소·활용성에 따라 4시간에 80~520유로까지의 임대료로 대여도 가능

- 2014년 ‘문화가 있는 테라스(Terrats en Cultura)’라는 주제로 많은 예술가가 옥상에서 음악·댄스·연극 등 색다른 공연을 선보임. 2015년 8월 말까지 10개의 옥상 공간에서 이러한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가을에는 5~6개의 옥상 공간이 더 추가될 예정임.
- 바르셀로나 테라스 개방 프로젝트 중 키코 에스쿠데(Kiko Escudé)의 추진자인 플로렌시 군틴(Florenci Guntín)은 타인의 방 또는 주차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옥상 공간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힘.
 - 대여 가능한 공간은 10개로 장소·활용성에 따라 4시간에 최소 80유로(약 10만원)에서 최대 520유로(약 65만 원)까지 임대료를 내고 옥상 공간을 대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옥상 대여 공간에서 유적지나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이웃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복잡한 문제임.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하우스 파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옥상 공연

“건물소유주·이웃 커뮤니티 모두 수익 얻을 수 있는 윈윈 모델” 평가

- 롤라 아르마다스는 ‘조화’를 강조하며 당시의 프로젝트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적인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대중은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매우 대중적인 가격에 제공되는 고급문화상품으로 고객들이 하루 동안 옥상 공간에서 무대와 이벤트를 즐기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좋은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역설함. 아울러 비록 활동은 적지만 건물 소유주와 이웃 커뮤니티 모두가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벤트 이후 옥상 공간이 원래대로 복구된다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함.

<http://www.pressreader.com/spain/la-vanguardia/20150624/282084865447610/TextView>

문화·관광

여름밤 광장서 열리는 무료 영화축제 ‘큰 인기’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 피렌체시가 자랑하는 최고의 여름 이벤트인 ‘Apriti Cinema’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온 무료 영화축제로 올해 4번째임. 매년 여름마다 시에서 대형 스크린을 광장에 설치해 많은 사람이 영화를 무료로 시청하고 즐길 수 있게 함.



브루넬레스키의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 보통 7, 8월이 되면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도시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
 - 이 축제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시에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소규모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상영작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브루넬레스키의 광장에 대형 스크린 설치... 국제 영화 23편 상영

- 올해는 ‘50일간의 축제’라는 주제로 피렌체시의 대표적인 광장인 ‘산티시마 아논지아타

광장(Piazza Santissima Annunziata, 브루넬레스키의 광장으로 불림.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배경으로 유명함)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임. 이벤트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총 23편의 국제 영화를 즐길 수 있음.

- 모든 영화는 밤 9시 30분에 시작되며 9시를 전후하여 광장은 영화를 즐기기 위해 온 가족·연인·친구들로 가득해 하루하루가 축제 분위기임.
-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이란·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한국 등 상영작이 국가별로 다양함. 피렌체의 영화제인 피렌체 한국영화제, 피렌체 중동영화제, 피렌체 일본 영화제 등 영화제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들을 선정하여 상영함.
 - 한국영화로는 7월 18일에 ‘끝까지 간다(김성훈 감독, 이선균 주연)’가 상영됨. 이 영화는 2015년 3월에 열렸던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반응이 좋아 이 영화 축제에서 유일한 한국영화로 선정되었다고 함.
- 매년 ‘Born to be Writer’라는 주제로 2~3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특별기획이 있음. 올해는 2010년 타계한 스페인의 세계적인 작가 호세 사라마고(Jose Saraamgo)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에 대한 영화를 상영함.
 - 단순히 영화를 보고 끝나는 일회성 재미뿐만 아니라 예술·문학적 접근으로 축제의 고유한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음.
 - 이탈리아 유명 여배우 발레리아 골리노(Valeria Golino)와 함께 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축제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이 축제가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최고의 여름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렌체시의 국제 영화제, 성 소수자 영화제, 지역 영화제 어워드와의 협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임. 또한 영화 선정부터 자막, 배우와의 시간 등 피렌체 시민에게 여름밤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http://www.toscanaintasca.it/apriti-cinema-in-piazza-ss-annunziata/>

<http://www.teladoiofirenze.it/cinema-teatro/apriti-cinema-film-sotto-le-stelle-gratis-in-piazza-ss-annunziata-fino-al-31-luglio/>

http://www.quellidellacompania.it/wp-content/uploads/2015/06/programma_Arena.pdf

<http://saci-art.com/2013/07/06/apriti-cinema-free-outdoor-art-film-festival-in-florence-july-8-august-4>

산업·경제

월 최저임금 7년간 2배 이상 올랐다

중국 상하이市 / 산업·경제

- 상하이市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음.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2015년 3월 31일 '2015년 상하이시 직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4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내용을 공지하였음. 통지한 내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2015년 약 36만 4,000원... 중국 도시 가운데 선전시에 이어 2위 기록

- 상하이시의 2015년 월 최저임금은 2,020위안(약 36만 4,000원), 최저시급은 18위안(약 3,25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하이시의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액

연도	최저급여 기준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월 최저임금	월 최저시급	최저기준액	최고기준액
2014	1,820위안 (약 32만 8,000원)	17위안 (약 3,000원)	3,022위안 (약 54만 5,000원)	15,108위안 (약 27만 2,000원)
2015	2,020위안 (약 36만 4,000원)	18위안 (약 3,250원)	3,271위안 (약 67만 2,000원)	16,353위안 (약 29만 5,000원)
증가액	200위안 (약 3만 6,000원)	1 위안 (약 180원)	249위안 (약 4만 5,000원)	1,245위안 (약 22만 4,000원)

- 상하이시의 2015년 월 최저임금은 2014년도의 1,820위안(약 32만 8,000원)에서 2,020위안(약 36만 4,000원)으로 11.0% 상향 조정되었고, 최저시급은 2014년도의 17위안(약 3,000원)에서 18위안(약 3,250원)으로 8.2% 상향 조정되었음.
 - 2015년 공시된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은 선전시(深圳)의 월 최저임금 2,030위안(약 36만 4,000원)에 이어 전국 2위임.
 -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무에 해당하는 취업 노동자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됨.
 - 상하이시는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최저기준액의 산출기준을 월 평균급여의 60%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최고기준액의 산출기준은 월 평균급여의 300%로 적용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업은 아래 4가지 항목을 규정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선 초과 근무 수당
 - 야근, 고온, 저온, 유독, 유해환경 등 특수 조건 및 환경 관련 수당
 - 개인이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 적립금
 - 식사보조(식대비), 출·퇴근 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
- 2015년도 새롭게 공지된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8.2% 상승하면서 기업 및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도 증가하게 되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농촌인구의 무분별한 도시유입을 막고자 호적제도를 두고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을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호적 제도로 외부에서 유입된 농촌호적의 상하이 거주자들은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아래 내용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도시호적을 기준으로 상하이에서 적용되는 기업 및 종업원부담의 사회보험료에 관한 내용임.

2015년 4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적용되는 기업 및 종업원 부담의 사회보험료

연도	기업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	
	도시호적 최저액	도시호적 최고액	도시호적 최저액	도시호적 최고액
2014	1,330위안 (약 24만 원)	6,648위안 (약 120만 원)	544위안 (약 9만 8,200원)	2,719위안 (약 49만 1,000원)
2015	1,439위안 (약 26만 원)	7,195위안 (약 130만 원)	588위안 (약 10만 6,000원)	2,943위안 (약 53만 1,000원)
증가액	109위안 (약 1만 9,000원)	547위안 (약 9만 8,700원)	44위안 (약 8,000원)	224위안 (약 4만 원)

-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008년의 960위안(약 17만 3,000원) 이후로 지난 7년간 약 2배 이상 상승했음. 아울러 2015년 상하이의 최저시급인 18위안(약 3,250원)은 2015년 우리나라 최저시급 5,580원의 3/5 수준에 해당할 만큼 상향 조정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던 것은 저렴한 노동임금이 가장 큰 이유였음. 그러나 현재 상하이를 포함해 중국 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철수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http://glxcb.cn/jiaoyu/zixun/201506/d_32683.html

<http://finance.stockstar.com/SS2015040700002687.shtml>

http://www.12333sh.gov.cn/201412333/xxgk/flfg/gfxwj/ldbc/bcftp/201504/t20150401_1199449.shtml

사회·복지

학생 2만여명에 무료로 안경 준다

미국 뉴욕시 / 사회·복지

- 뉴욕시는 뉴욕에서 창업한 민간기업인 '와비파커(Warby Parker)'社와 협력하여 2만여 명의 학생에게 무료로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함.
- 뉴욕시는 1,0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들여 자치구별로 총 130개의 학교에 무료 정밀시력검사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는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교정하여 학습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만여 명의 학생에게 4년간 안경을 지원하기로 한 Warby Parker社

시, 민간기업과 협력...4년 동안 연 23억여원 지원·무료 정밀시력검사

- 시정부에서 민간에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번 사업이 최초임. 뉴욕시는 창업한 기업이 직접 보건서비스 부문에 기부한 것에 의의를 두고 기술력을 가진 도시 내 자생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당부함.

- 실제로 뉴욕시는 시력검사를 받은 후 안경을 처방받는 사례가 적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직접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을 시행함.
 -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와비파커 사는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한 바 있음. 도시정부는 해마다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예산을 제공하고, 정밀시력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 와비파커 사에서 제공하는 안경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상품이 아닌 저가의 일반 상품임. 일반에 보급하기 적합한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들이 처음으로 쓰는 안경으로 적합한 상품을 선정함.
- 미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력 저하 문제가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또한 안경 처방을 위한 정밀시력검사 비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36-15/mayor-de-blasio-partnership-warby-parker-provide-free-eyeglasses-students-at/#/0>

남성 성폭력 피해자 전문 치료병원 개원

스웨덴 스톡홀름市 / 사회·복지

- 2015년 가을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실이 스웨덴에서 최초로 스톡홀름 남부 종합병원(Södersjukhuset)에 마련될 계획임.
- 201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유럽국가 중 강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스웨덴임.



클리닉이 들어설 스톡홀름 남부의 대표 병원인 스톡홀름 남부종합병원

스웨덴 국내 최초로 24시간 내내 응급실 운영... 양성평등 실현 포석

- 스톡홀름 남부종합병원은 이미 북유럽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응급실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예약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음. 매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성폭력 피해 여성은 600~700명 정도임.
- 이 병원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5년 10월 중순부터 성폭력을 당한 남성도 전문 클리닉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스웨덴 국립 범죄 예방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에 따르면 2014년 스웨덴에서 보고된 성폭력 사건 중 370건은 피해자가 성인 남성 또는 미성년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스톡홀름 남부종합병원의 의사인 로띠 헬스트룀(Lotti Helström)은 스베어릭스 라디오(Sveriges Radio)와의 인터뷰에서 “남성은 강간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남성 피해자들이 여성 피해자보다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남성 강간에 대한 주제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의 측면에서 남성이 건강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남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말함.
 - 남성 강간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보다 훨씬 더 많고 이것이 이후 ‘성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함.
- 지난해 양성평등 조직인 스웨덴 성교육 협회(Riksförbundet för sexuell upplysning)의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 중 남성이 성폭력을 당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웨덴 성교육 협회의 대변인인 잉예르 보크룬드(Inger Björklund)는 The Local誌와의 인터뷰에서 “남성성에 대한 미신이 존재해 성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시설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말함.
 - 그는 이 클리닉이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해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 피해자에게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The Local」, 2015-06-17

<http://www.thelocal.se/page/view/sweden-announces-first-centre-for-raped-men>

환경·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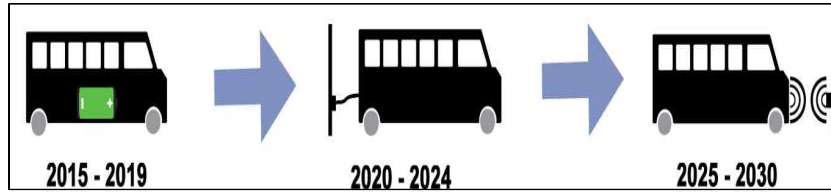
초저탄소 배출 차량 프로젝트 대대적 시행

영국 버밍엄시 / 환경·안전

- 버밍엄시는 시의 공기 청정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2027년까지 도시 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990년 측정 결과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초저탄소 배출 차량(Ultra Low Emissions Vehicles, ULEVs)’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보다 60% 감축 추진

- 버밍엄시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차량을 2031년까지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교체할 계획임.
 - 시는 철도 전력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기로만 움직이는 기차를 운행할 계획임. 2015년까지 브롬스그루브(Bromsgrove) 지역까지, 2017년에는 루겔레이(Rugeley) 지역까지 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임.
 - 경전차(tram)나 가공 전차선(overhead lines), 배터리 전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임.
 - 도시 순환버스들은 지금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현재 버밍엄시의 도시 교통법에 따르면 시내에 진입하는 모든 버스는 유럽의 탄소 배출량 기준(Euro-standard emissions)을 따라야 함. 시는 2022년 이후 새롭게 제정되는 협정에서 버스 탄소 배출 기준의 대폭 상향을 제안할 것임. 버스뿐 아니라 다른 중요 대중교통 수단들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현재 버스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음. 2019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 디젤 추진력을 버스에 적용하고 2024년까지 플러그 인(Plug-In) 충전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그리고 2030년까지 무선 유도 충전 기술을 탑재한 버스를 운영할 계획임.



전기 디젤 혼합 추진 → 플러그 인 방식의 충전 방식 도입 → 무선 유도 충전 기술 & 전기 배터리 추진

궁극적으로 모든 대중교통 차량의 탄소 배기가스 무배출이 목표

- 시는 궁극적으로 시내 대중교통 전 차량의 탄소 배기가스 무배출을 목표로 삼고 지역 시민도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전기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 이미 36곳의 전기 차량 충전소가 설치되었으며 30만 파운드(약 5억 3,677만 원)가량이 ‘저(低) 배기가스 차량 사무소(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 OLEV)’를 통해 투자됨.
 - 향후 저/제로 탄소배출 차량 연료를 위한 기반시설의 사업 가능성을 위해 지도 기반 연구가 필요함.
 - 초저탄소 배출 차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Nissan)과 협력하기로 함. 시는 2015년 9월까지 전기로 구동되는 택시 8~1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이 계획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NEW Nissan e-NV200임.
 - 닛산은 또한 다른 전기 차량 모델인 Nissan Leaf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의회 의 ‘노약자 야간 시간 돌봄 팀(Adults&Communities Night Care Team)’에 제공함. 시 의원들이 실제로 전기 차량을 사용해 봄으로써 시가 전기 택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임.



시의회에 6개월 동안 무료로 공급된 닛산 전기 차량 Nissan Leaf

- 저탄소 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인 시벡스(Cenex)사가 시의회를 위해 닛산 전기 차량 운영의 주요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닛산 전기 차량 이용 시 주요 장점 및 특이점

- 차량의 유해 배기가스 배출 제로(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 1마일당 3.3펜스(57.96원) 사용. 1마일당 9.5펜스(166.86원) 사용되는 디젤 차량과 비교해서 효과적임
-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데까지(Well to Wheel)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 감축
- 1회 배터리 충전(7시간 소요)으로 83마일 운행 가능
- 추운 날씨는 전기 차량의 에너지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침
- 전기 차량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 추운 겨울 시즌에 Nissan Cold pack을 구매해 차량의 배터리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버밍엄 시의회의 존 코튼(John Cotton) 의원은 초기 닛산 전기차 시범 적용 결과를 통해 자연 친화 전기차의 명확한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더 많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테스트들을 거쳐야 함을 강조함.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공기 환경 향상을 돕고 나아가 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함.

<http://www.birmingham.gov.uk/cs/Satellite/connected?packedargs=website%3D4&rendermode=live>

<http://birminghamnewsroom.com/low-emissions-vehicle-trial-moves-up-a-gear/>

‘녹색공간·생물다양성 증진’ 조경자격증 제도 신설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파리市는 2015년 7월 1일 시의회에서 파리시 내 녹색 공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조경자격증 제도를 신설함. 파리시의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시민 다수에게 지지받고 있는 제도임.
- 이 제도의 목표는 2020년까지 파리 시내 100헥타르의 토지, 화단, 벽 등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임.

자격증 취득자, 시 녹지공간 조성에 정원사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이 조경자격증을 취득한 파리시민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파리시 내 녹지공간 조성에 정원사 자격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함. 참여자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녹지공간 설정 및 조경계획이 자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공장소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도시 미화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녹색성장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환경 개선 외에도 파리시민의 사회적 교류 및 연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조경자격증 지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개인의 정원 조성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자격증은 무료로 부여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갱신됨.
 - 약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자격증이 교부되며 동시에 경작 도구나 요구에 따라 식물 씨앗도 제공됨.



조경자격증 취득 후 할 수 있는 원예활동들

- 조경자격증 취득 후 할 수 있는 원예활동은 아래와 같음.
 - 거리 구석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토마토 등의 작물 재배, 씨를 퍼뜨리기 위한 꽃이나 나무 재배, 벽에 덩굴 식물 재배 등이 있음. 그 외에도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시는 조경이 생소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원예정보센터(Maison du Jardinage-Pôle ressource Jardinage Urbain)를 운영하고 있음.

<http://www.paris.fr/actualites/un-permis-pour-vegetaliser-paris-2689>

<http://www.lemoniteur.fr/article/paris-propose-un-permis-de-vegetaliser-la-ville-aux-habitants-28959842>

도시교통

수소연료기술 활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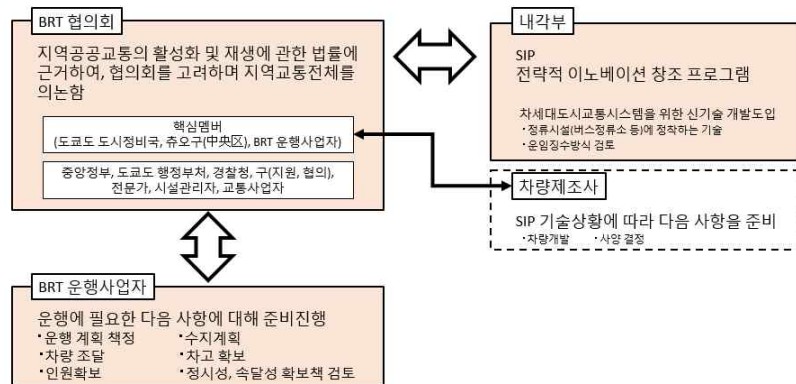
일본 도쿄都 / 도시교통

- 도쿄都는 2015년 4월 ‘도심과 임해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시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함.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선수들 신속 수송’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 필요

- 도쿄도는 2020년도 올림픽경기 개최에 앞서 선수들의 수송을 위한 도로 건설과 선수촌 건설 등의 도시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하네다 공항이 있는 임해부도심(臨海副都心) 지역과 도심 지역을 잇는 구간의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2014년 11월 BRT 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고 계획을 검토해 왔음.
 - 임해부도심 일대는 도심에서 약 6km 떨어져 있으며 업무 집적지임. 이 일대를 MICE 산업(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중 하나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및 전시를 통한 산업)과 국제관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중임. 현재 노선버스와 회사 셔틀버스에 의존하는 교통상황과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이 필요함.
- 도쿄도는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을 높이기 위해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검토해 왔음.
- 2015년 2월 발표한 도시전략회의 보고서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와 수소연료기술 연계 방향을 제시했던 것을 고려하여, 이번 BRT 계획에서도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스테이션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할 예정임.
- 수소연료기술에 기초한 BRT 시스템 도입은 도쿄도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소 사회의 실현을 공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

- BRT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부가 진행 중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의 자동주행 시스템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정류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고려하여 틈새, 단차 없이 정차하는 기술, 차내에서 급정거로 넘어지지 않도록 가감속 제어기술 등을 도입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함.
 - 원활한 승차에 따른 정차시간 감축을 위해 SIP와 연계한 요금징수 시스템과 통신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 수소스테이션은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보급할 기반시설임. 시설 규모는 BRT 차량에 공급 가능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장소, 정비주체, 운영주체를 포괄적으로 검토 중임.



2015년도부터 적용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검토

- 이번 BRT 계획 실시 과정에서 얻은 계획 입안, 관계자 조정, 조달,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는 향후 공공교통계획을 수행하는 행정 및 사업자와의 기술 협력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BRT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정비, 조달 운영, 유지관리 등의 업무는 상하분리 방식이나 보조제도 확충을 검토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 운영 방식도 모색하고 있음.

- 상하분리 방식이란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경영할 때 하부-인프라의 관리와 상부-운영 및 운영 조직을 분리하여 상부와 하부의 회계를 독립시키는 방식을 뜻함.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실험운영 중인 수소연료 버스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kiban/brt/>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4/DATA/70p4s100.pdf>

도시계획·주택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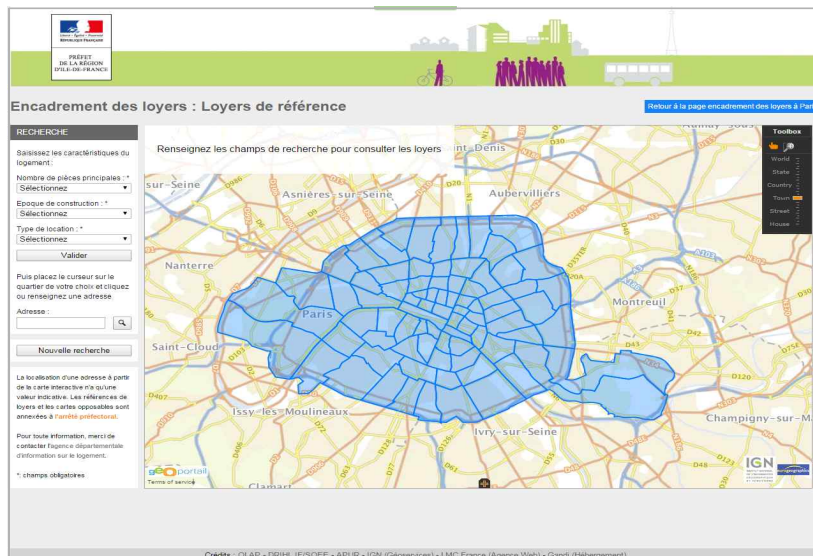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시 / 도시계획·주택

- 지난 10년간 파리시의 월세가 150% 상승하고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주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아왔음.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파리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하였음.
-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례도 전격 시행되었으며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
- 이 임대료 상한제는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이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임차료 인상 혹은 인하)에 모두 적용됨.

시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인상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 내놓을 수 없어

- 시 조례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주는 '인상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을 내놓을 수 없게 됨. 여기서 인상기준 임대료는 동마다 다르게 계산된 임대료 중앙값의 120%에 준하는 금액임.
- 임대인은 기준 임대료의 120%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그 밖에도 임대인은 서로 다른 두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조정지표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음.
 - 예외 조항 :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18개월 이상 비어 있던 주택을 다시 임대할 때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제한 조항에서 예외 적용을 받음. 그러나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가 이전 임차인에게 받던 것보다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인상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음.

- 과도한 임대료 증명 :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임대료 상한제를 넘어선다고 인지한 새로운 임차인은 3년 내로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파리지 임대료 관찰국(OLAP, Observatoire des loyers parisiens)은 8월 이후로 적용되는 인상 기준 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 파리지의 80개 생활권(quartier)을 14개 권역(zone)으로 나누고 주택 유형을 4개의 '방의 개수'와 4개의 '건축시기'로 나누어 총 16가지 범주로 구분함.
- 일-드-프랑스 도청 주택국 사이트(<https://www.referidf.com>)에서 인터랙티브 지도로 각 동네의 임대료 중앙값과 하한가, 상한가를 공개함. 인터랙티브 지도상의 왼쪽 메뉴 바에서 원하는 방의 개수, 건축시기 및 가구구비 여부 등을 입력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함.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각 동네의 임대료 중앙값·하한가·상한가 공개

- 예시 1) 학생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인 소르본(Sorbonne) 지역의 풀 옵션 원룸(1970~1990년 사이 건축)은 1평방미터당 임대료 중앙값이 30.9유로(약 3만 8,700원), 상한가는 37.1유로(4만 6,275원), 하한가는 21.6유로(2만 6,941원)임.

- 예시 2)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 파리 동부의 벨 에어(Bel Air) 지역에서 자녀가 있는 중하층이 거주할 만한 3칸짜리(방 2, 거실 1) 아파트(1990년 이후로 건축)는 임대료 중앙값이 21.6유로/m²(2만 6,941원/m²), 상한가는 25.9유로/m²(3만 2,305원/m²), 하한가는 15.1유로/m²(1만 8,834원/m²)임.
 - 예시 3) 시내와 가까운 팔레-루아얄(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194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가구가 구비된 3칸짜리 아파트는 임대료 중앙값이 28.6유로/m², 상한가는 34.3유로/m²(4만 2,782원/m²), 하한가는 20유로/m²(2만 4,946원/m²)임.
- 이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됨. 임대료 조정 실패 시 도청의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http://www.paris.fr/actualites/l-encadrement-des-loyers-parisiens-en-vigueur-le-1er-aout-2712>

원격 근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에 즈음하여 통근자들에게 유연한 근무 형태와 집에서 근접한 대안적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원격 근무시스템(Smart Work Hubs)을 구축하고 있음. 주정부는 150만 호주달러(약 15억 원)를 투자하여 시드니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5개 지역을 선정해 원격 근무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 근무시스템의 경제성·생산성 측면에서의 혜택에 관한 증거를 확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원격 근무시스템의 비즈니스 생산성과 수익 향상, 기반시설 비용 감소, 도심 외곽 지역 경제발전 기여,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 및 발전 기여, 그리고 여타 산업에 실질적인 파급효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주정부는 지난 2014년 뉴사우스웨일즈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개발 기틀(The NSW Economic Development Framework)'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성장을 활성화할 주정부의 역할을 크게 5가지로 규정함.
 - 주의 생산성과 경제활동의 토대가 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심 외곽 지역에 산업 기반시설과 인구를 분산하여 도심으로의 유동인구 진입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채택함. 원격 근무시스템은 이 원칙을 현실화할 실행계획 중의 하나임.

도심 통근 근로자 많은 5개 지역에 원격근무시설 설치... 최소 1년 운영

- 주정부는 도심으로의 통근자 비율이 높은 5개의 외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에 원격 근무 시설을 구축함. 주로 시드니 도심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30% 이상은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도심 주변 지역 통근자보다 35~50% 긴 것으로 조사됨.
- 원격 근무시스템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이미 적용 중인 근무 형태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경제정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에 의의가 있음.

- 원격 근무시스템은 고용주에게는 작업장 운영비 감소, 결근율 감소, 생산성과 기업 혁신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제공함. 또한 근로자는 통근 시간 절약을 통해 일과 직장의 균형 향상, 통근 비용 지출 및 스트레스 감소, 도심으로의 이주 필요성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동참여율 증가 및 실업률 감소, 도심으로의 교통 체증과 연료 사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됨.



원격 근무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구축된 5개의 시드니 외곽 지역

- 원격 근무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운영될 예정이며 실제 운영 책임은 시설이 구축된 지역의 자치구가 맡게 됨. 원격 근무시스템은 개인 책상, 회의실, 초고속 인터넷 및 화상 회의, 부엌, 주차 공간, 그리고 보안 카드를 통한 진입 등의 작업 시설을 제공함. 원격 근무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비즈니스는 구청과의 계약을 통해 사용 기간, 인원 및 비용 등을 협의하게 됨.
- 주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여기에 원격 근무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의 욕구,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 및 불만족 요인, 그리고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형평성 고려(대기업의 경우 이용자 인원 제한의 필요성) 등이 포함될 예정임. 주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로서의 원격 근무시스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함.

http://www.trad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4/53653/NSW_Economic_Development_Framework_A-platform-for-growth.pdf

<http://www.gosford.nsw.gov.au/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mart-work-hub-schedule-of-fees-and-charges.pdf?sfvrsn=0>

<https://www.nsw.gov.au/news/working-smarter>